

알폰소 바뇨니(P. A Vagnoni)의 『동유교육(童幼教育)』 연구

배주연*

<차 례>

1. 서론
2. 『동유교육』의 서지사항
3. 『동유교육』의 체제 및 내용
4. 『동유교육』의 내용상 특징
5. 조선에서의 관련 기록과 그 의미
6. 결론

<국문초록>

『동유교육』은 17세기 중엽 이태리 출신 선교사 바뇨니(Vagnoni)가 예수교의 적응주의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저술한 아동 교육서이다. 본 연구는 중국 선교사 바뇨니가 지은 『동유교육(1620)』의 서지 사항을 비롯한 저술 배경과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 그 특징을 정리하고 조선 서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문화적 배경은 서구였으나 다년간의 중국 생활로 당시의 동아시아 문화를 수용한 점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전략에 의해 바뇨니가 쓴 한 문서학서 『동유교육』에 대한 연구는 당시 동서 문화 교류사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유교육』 필사본인 대만의 보인대학본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내용 분석을 통해 추출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회 수련 과정에서 서양의 철학 정치학 윤리학에 대한 숙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서학에 대한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연구교수.

계통적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바뇨니는 ‘서학’이라는 언급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유교육』을 1620년 지었음을 볼 때 Aleni의 『서학범(西學凡)』보다도 앞선 시기였다. 이를 통해 서양 학문에 대한 개관적 설명으로 서학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아동 교육에 있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어머니를 기르는 역할로 아버지를 가르치는 주체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동양적 사고방식인 유교에 바탕으로 둔 본말론(本末論)이 아닌 ‘인(仁)’을 본받는 것의 근본이 바로 천주에 있다고 함으로써 유가적 가치이자 윤리규범인 인과 천주를 경외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통한 동서 융합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大學)』의 삼강령팔조목(三綱領八條目) 중 하나로 수신(修身)하지 않으면 집안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여 제가(齊家)에 앞서 수신을 그 선행요건으로 삼는데 이는 서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국가·가정·개인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한 것을 윤리적 측면에서 동양적 개념으로 수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동유교육, 아동교육, 예수회, 윤리학, 서학, 알폰소 바뇨니.

1. 서론

『동유교육』은 17세기 중엽 이태리 출신 선교사 바뇨니(Vagnoni)가 예수교의 적응주의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저술한 아동 교육서이다. 본 연구는 중국 선교사 바뇨니가 지은 『동유교육(1620)』¹⁾의 서지 사항을 비롯한 저술 배경과 각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 특징을 정리하고 조선 서학사에서 차지하는 본 자료의 의의를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자료는 17세기 중국에 체류하였던 선교사의 입장에서 저술한 것으로 문화적 배경은 서구였으나 15여년 간의 중국 생활로 자료에 사용된 언어와 일부 내용은 당시의 동아시아

1) P. A Vagnoni 著, 『동유교육』 上下, 鐘鳴旦 外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文獻』, 臺北, 輔仁大學神學院, 1996.

이 문화를 수용한 흔적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동서 문화 교류의 매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17세기 초 중국의 선교사였던 바노니가 쓴 한문서학서 『동유교육』에 대한 연구는²⁾ 당시 동서 문화 교류사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동유교육』의 저술 및 유입 배경을 살펴보면 그 과정은 성공적인 중국 선교의 계기가 되었던 예수회³⁾의 보유론적(補儒論的) 적응주의 노선이 잘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예수회의 활동에서 동방 전도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회가 단순히 신학만이 아니라 르네상스의 학문적 성과를 대담하게 흡수하게 위해 교육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곧 천문학과 역학에 대한 중국 사인층(士人層)의 강한 관심에 부응하여 포교에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다.⁴⁾

마테오 리치를 필두로 한 예수회의 선교가 중국 사회의 엘리트인 사인

- 2) 『동유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는 김귀성의 논의(김귀성, 『P. A Vagnoni 著, <동유교육>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教育問題研究』 35집, 2009, 21~42쪽)와 (박지현, 『알폰소 바노니의 <서학제> 제부부 권』, 『인문논총』 제67집, 2012, 511~550쪽)의 논의가 있다. 김귀성은 자료의 출처를 개관하고 교육학적 입장에서 아동교육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박지현은 논의에서 <서학제>의 제부부 권을 선교의 한 방식으로서의 부부윤리로 보아 一夫一妻의 당위성(1장 定偶, 2장 擇婦), 바른 직분과 화목의 의미(3장 正直, 4장 和睦, 5장 全和), 남편의 덕목과 아내의 덕목(6장 夫箴, 7장 婦箴) 결혼의 목적(8장 偕老, 9장 再婚)으로 항목화하여 분석하였다.
- 3) 예수회는 유럽에서의 종교 개혁에 대항하여 가톨릭교회 내의 혁신을 목적으로 결성된 반종교개혁적 수도회이다. 반종교개혁적 수도회라면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박해뿐 아니라 이전 스페인왕국에서 이슬람교도나 유대교도를 이단으로 종교재판에 회부하여 가혹한 박해를 가했던 프란체스코회나 도미니크회를 연상시키는데 이들은 후에 예수회에 적대하여 중국에서의 포교활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 예수회는 1534년 성모마리아 승천 대축일인 8월 15일,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교회에서 총회장인 로욜라(Ignatius Loyola: 1491~1556)와 동방 전도의 선구자인 사비에르(Francisco Xavier: 1506~52)를 포함한 7인이 예수회 결명을 서약함으로써 성립되었는데 1540년 로마교황 바오로 3세가 수도회로서 공식 인가했다(강재언, 『서양과 조선』, 학교재신서, 14~15쪽).
- 4) 강재언, 앞 책, 16쪽.

층 즉 문인 관료 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 ‘적응주의’ 전략을 갖고 있었다. 적응주의는 예수회 신부들을 천주교 전파를 위한 사제인 동시에 유럽에 중국의 정보-중국의 지리, 언어, 철학, 종교, 역사, 제도 기술을 전하고 해석하는 중국학자로 가능하게 했다. 먼젤로(David Mungello)에 의하면 예수회 적응주의의 노선은 다음의 두 가지 배경을 지니고 있는데 첫째, 당시 유럽은 ‘진기한 나라’ 중국에 대해 상당한 호기심과 지식 열풍을 가지고 있었고 두 문화를 융합하려는 적응주의의 시도가 예수회로 하여금 중국에 관한 정보의 주요 공급자로 만들고 이것이 유럽의 학자들과 군주들로부터 선교 사업에 대한 폭넓은 지지기반을 이끌어 내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예수회 선교사들은 서구의 지식을 중국의 문화배경에 적용시키고 유교와 천주교의 융합을 통해 중국 지식인들을 포섭하여 개종을 위한 중국 왕조의 승인을 얻으려 했다는 것이다.⁵⁾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테오 리치와 그 선후배 예수회 선교사들은 무엇보다 중국 언어와 문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 위해 노력했고, 중국 의복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는 등 중국 풍속에 동화되기 위해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철학과 역사, 종교, 지리, 기술 등을 이해하기 위해 옛 경전들을 읽고, 중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하고 관찰했다.⁶⁾ 이러한 노력으로 그들은 종교를 전파하고 서구 지식을 전

5) 먼젤로(Mungello) 지음, 이향만·장동진·정인재 옮김,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의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나남, 2009, 11~16쪽.

6) 1582년 마테오 리치가 마카오에 도착하기 이전 동아시아 선교를 총괄하던 발리나노(Alessandro Valignano, 1539~1606)는 일본과는 달리 외국인 거주를 허락하지 않고 문을 걸어 잠근 중국 개종을 위해서는 중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중국에 관한 학식과 지식을 체득한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제자인 루제리(Ruggieri, 1543~1607)에게 전력을 다해 중국어로 읽고 쓰고 말할 수 있도록 공부할 것을 명한다. 후에 루제리 또한 고아에 있던 마테오 리치의 추가 파견을 요청하면서 그에게도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중국어를 익힐 것을 권했다. 이들은 1583년 마침내 광동성 肇慶

달하기 위한 다양한 한문 저작들을 저술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어 중국을 유럽에 소개하기 위해 주요 서적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한편 중국에 관한 여러 방면의 저서를 출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당시 중국 선교의 배경에서 바뇨니 역시 포교 활동의 일환으로 서구의 아동교육을 중심으로 관련 서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동유교육』을 저술하였던 것이다.⁷⁾ 이는 적응주의 입장에서 쓴 윤리 교육서로서 중국에서 간행된 후 조선에도 유입되어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 예수회의 조선 포교는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직접적으로 선교사를 입국시켜 포교하지 못하고 북경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으로 진행되었는데 북경을 방문하는 여행사의 중국 체류 선교사와의 직접 교유나 이를 통한 관련 저술 서적의 유입 등을 통해서 서학을 접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3국 중, 선교사가 직접 들어온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조선은 북경을 매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거기에서 한역된 서양서와 매년 북경에 왕래한 여행사와 예수회 선교사의 접촉을 통해 서학이 전해졌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동유교육』은 『외규장각목록』에만 존재할 뿐 실제 자료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⁹⁾ 따라서 본고의 대상 자료는 대만의 보인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영인하여 펴낸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

에 거주 허락을 받고 중국 입성에 성공한다.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禰弘) 지음, 노영희 옮김, 『마테오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동아시아, 2002, 72~82쪽.

7) 이 외에도 동아시아에 소개된 대표적인 서양교육 관련 자료로는 Allen이 지은 『서학범』(1623), 『직방외기』(1623) 등이 있다. 바뇨니가 지은 또 다른 저서로는 『제가서학』(1630)이 있는데 이 저서에는 제가의 범주는 부부, 자녀, 복비, 전도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¹⁾ 『제가서학』의 제2권의 내용과 『동유교육』의 1권의 내용이 거의 유사한데 가정을 다스리는데 있어 부부와 자녀교육의 역할을 중시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8) 『外奎章閣奉安冊室寶譜略誌狀御製筆及藏置書籍形止案』, 乾隆 47, 정조 6년, 1782의 기록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본문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9) 서학의 理, 즉 종교, 윤리적인 면이 부정적 반응의 대상이 되었다면 『동유교육』도 그 부류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文獻)』¹⁰⁾에 편입된 필사본을 그 저본으로 삼았다.

2. 『동유교육』의 서지사항

본 자료는 두 가지 판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하나는 1620년 판 필사본과 다른 하나는 1624년 판 목판본이다. 필사본에는 한림의 서문이 있는 반면 목판본에는 서문이 없다. 다만 보인 신학대학교에서 영인하여 펴낸 『서가회장서루 명칭천주교문헌(徐家匯藏書樓 明清天主教文獻)』(鐘鳴旦 外, 臺北, 輔仁大學神學院, 1996)에는 필사본인 『동유교육』을 비롯하여 목판본 『제가서학』 1, 2권(二章 ‘齊童幼’ 부분 - 『동유교육』 上 부분 포함)이 함께 실려 있으며, 『법국국가도서관 명칭천주교문헌(法國國家圖書館 明清天主教文獻)』에는 목판본 『제가서학』 3, 4, 5권(『동유교육』 下 부분 포함)이 실려 있다.

『서가회장서루명칭천주교문헌』에 실린 필사본은 상하 두 권(26cm×18cm)으로 구성된 총 183쪽 분량으로 각 권 10개 항목씩 총 2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16자×9줄×183쪽=총 26,352자 분량이 실려 있다. 서문은 당시 한인 사대부 한림(韓霖)이 쓰고 정열(訂閱)은 서양 선교사 네 명(費奇規, 龍華民, 鄧玉函, 陽瑪諾 共訂)과 중국인 두 명(段袞, 韓霖)이 각 각 담당하였다.

알폰소 바뇨니(Alfonso Vagnoni, 1566~1640)의 자는 칙성(則聖), 초명은 왕풍숙(王豐肅)이며 후에 고일지(高一志)로 개명하였다. 1566년 이탈리아 트라파니(Trapani)에서 태어나 18세 때인 1584년 예수회에 입회하였다. 1603년 4월 성요한 호를 타고 1604년 7월 마카오에 도착 39세 때인 1605년 3월 남경으로 들어갔다. 그는 남경의 선교 책임자로서 포르투갈 출

10)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文獻』, 臺北, 輔仁大學神學.

신인 사무록(謝務祿 : Semedo)¹¹⁾과 함께 선교 활동을 펼쳐 45세인 1611년 5월 3일 ‘성십자교당(聖十字教堂)’을 완공하여 남경을 중국 선교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5년 후 1616년 5월, 남경의 예부 책임자인 심곽(沈灌)에 의해 주도된 남경 교난을 겪어 사무록을 포함한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체포되어 감금되었다. 이 때 이지조·양정균·서광계 세 명이 남경의 소식을 듣고 성교(聖教)를 보호하여 변호하니 교세가 더욱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심곽은 황제의 교지라고 전하면서 북경의 서양인 방적이(龐迪我), 웅삼발(熊三拔)과 남경의 고일지와 사무록을 함께 풀어 주어 마카오로 추방시켰다. 이 때 그는 마카오에서 2년여 동안 머물면서 저술과 전교 활동에 힘썼으며 1624년 난이 가라앉은 후, 이름을 왕풍숙에서 고일지로 바꾸고 산서 강주(絳州)로 가서 15년간 선교와 구휼 활동에 힘쓰다가 74세인 1640년 4월 병사하였다.¹²⁾

그는 산서 지역으로 들어가 생을 마칠 때까지 15년간 왕성한 전교를 펼치며 모두 23종의 한문 저작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문헌 기록으로 확인되는 바노니의 한문 저작 목록은 다음과 같다.

11) 謝務祿 / 曾德昭(P. Alvarus de Semedo: 1585~1638) 字는 繼元, 初名은 謝務祿. 포르투갈 태생으로 1613년 남경에 도착했으며 1616년 남경 교난을 겪어 高一志와 함께 투옥된 후 마카오로 추방되었다. 1620년 曾德昭로 개명하고 전교에 힘쓰며 처음에 杭州에서 활동하다가 江西, 江南을 거쳐 西安(1621년)에 있었다. 1644년 예수회 회장을 맡았으며 1649년 廣州로 옮겨 활동하다가 투옥되어 湯若望과 뜻을 함께 하였으며 그 후 그 곳에서 활동하다가 1658년 사망하였다(『明清間耶穌會士譯著提要』).

12) 바노니의 중국 전교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1605년에서 1616년 교난 때까지 남경에서 활동한 시기이다. 두 번째가 1624년 12월에서 1640년 4월 사망할 때까지 산서에서 강주를 중심으로 활동한 시기이다. 그는 마테오리치의 노선을 따라 우선적으로 그 지역의 유력한 신사층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그들의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교활동의 주안점은 빈민 구제를 통한 교세 확장에 있었는데 그가 산서에서 활동했던 15년간 세례를 받은 사람은 8천여 명에 이른다. 특히 1634년 대기근 때에는 1530여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楊森富 編, 『中國基督教史』,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57(1968), 74쪽.

- (1) 『教要解略(聖要解略)』 2권 : 1626년 絳州에서 초각.
- (2) 『聖母行實』 3권 : 1631년 강주에서 印.
- (3) 『天主聖教聖人行實』 7권 : 1626년 강주에서 印.¹³⁾
- (4) 『四末論』 4권 : 1640년 間.
- (5) 『則聖十篇』 1권 : 1626년 이후 福州에서 印.
- (6) 『十慰』 1권 : 1640년 間, 강주에서 印
- (7) 『勵學古言』 1권 : 1632년.
- (8) 『修身西學』(『西學修身』) 5권 : 1630년 이후 강주 印.
- (9) 『齊家西學』(『西學齊家』) 5권 : 1624년 이후
- (10) 『西學治平』 4권 : 1630년 이후.
- (11) 『民治西學』 2권(『서학治平』의 續篇).
- (12) 『童幼教育』 2권 : 1620년 印.
- (13) 『寔宇始末』 2권.
- (14) 『斐錄答彙』 2권.
- (15) 『譬學警語』 2권 : 1633년.
- (16) 『神鬼正紀』 4권 : 1633년 강도 印.
- (17) 『空際格致』 2권 : 1624 이후.
- (18) 『達道紀言』 1권.
- (19) 『推驗正道論』 1권.
- (20) 『聖意納爵傳』*
- (21) 『聖方濟各沙勿略傳』*¹⁴⁾

이 중에서 조선에 전래된 것으로 정법류(1), 성서격언류(4), 진교변호류(1), 신철학류(3) 총 9종으로 『외규장각목록』에 기록되어 있어 서적 유입 시기는 1782년 이전으로 볼 수 있다. 정법류는 『동유교육』, 성서격언류는

13) 『聖人行實』(1629)과 동일 자료로 추정.

14) * 표시 저작은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文獻』(臺北, 輔仁大學神學本)에는 없고 『法國國家圖書館 明清天主教文獻』第十二冊 145~186쪽에만 실려 있다.

『비록답휘(斐錄答彙)』, 『사말론(四末論)』, 『여학고언(勵學古言)』, 『달도기언(達道紀言)』, 진교변호류로는 『천주성교성인행실(天主聖教聖人行實)』, 신철학류로는 『수신서학(修身西學)』, 『제가서학(齊家西學)』, 『환우시말(寰宇始末)』 등이 있다.

그는 번역보다는 술, 찬, 저 등을 남겼는데 성경의 해제, 성인의 행실, 천주교의 정통성 주장에 대한 것이 중심이고 더불어서 실용적인 천문·역법에 대한 것보다는 교육·수신·철학·정치에 대한 것을 소개시켰다. 종교 사학자인 바르토니는 바노니를 일러 “중국에 파견된 선교사 중에서 교내외로 존경을 받는 인물로 마테오 리치를 제외하고는 바노니를 능가할 사람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¹⁵⁾

3. 『동유교육』의 체재 및 내용

童幼教育 序

童幼教育 卷之上 目錄

教育之原 第一 (見一張)	育之功 第二 (見五張)
教之主 第三 (見八張)	教之助 第三 (見十張)
教之法 第五 (見一四張)	教之翼 第六 (見十七張)
學之始 第七 (見二十張)	學之次 第八 (見二十四張)
潔身 第九 (見二十八張)	知恥 第十 (見三十二張)

童幼教育 卷之下 目錄

默言 第一 (見一張)	言信 第二 (見四張)
文學 第三 (見七張)	正書 第四 (見十日張)

15) Bartoli, “中國耶穌會史”, 『在華耶穌會十列傳及書』 上冊, 北京中華書局, 1996.

서학	第五 (見十五張)	飲食	第六 (見二十一張)
衣裳	第七 (見二十四張)	寢寐	第八 (見二十六張)
交友	第九 (見二十九張)	閒戲	第十 (見十二張)

『동유교육』은 저작 목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저자가 54세 때인 1620년에 저술한 것으로 이때는 그가 중국에 온지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은 비교적 초기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서문에서 한림(韓霖)은 바노니가 “이 책은 아동만을 위해서 쓴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인격도야와 가정과 국가를 잘 다스리고 세상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모두 담겨 있다. 서구의 학문과 중국의 유학에는 서로 같은 부분이 있다. 예전의 교육을 보면 그렇다(中略) - 나는 바노니 선생의 이 책이 조정에서 백관제후의 가르침으로부터 일반인의 교육에 이르기까지 널리 교사로 삼게 되기를 바란다.”¹⁶⁾고 말하였음을 언급하는데 이는 저자가 『동유교육』을 통해 아동 교육 뿐만 아니라 학문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하여 저술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상권은 교육 전반에 관한 개론적 내용을 하권은 언어, 문학, 의식주, 교우관계, 휴식 등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 내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상하권의 구성 체계를 편제에 따라 내용상으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16) “此非獨童幼書也 修齊治平盡在是矣 奧惟西儒之學 與吾儒同 -(中略)- 余於先生此書 欲自朝廷儲訓 以至閭巷蒙求 莫不以爲기 著蔡爲師保”

〈표 1〉 『동유교육』의 내용 분류

구분	주제	내용	구분	주제	내용
上卷	教育之原	교육의 근원	下卷	緘默	묵언의 가르침
	育之功	양육의 임무: 母		言信	믿음직한 언행
	教之主	가르침의 주체: 父		文學	학문의 수학
	教之助	가르침의 조력자: 教師		正書	바른 독서
	教之法	가르침의 방법		西學	서구 학문
	教之翼	가르침의 균형: 賞罰		飲食	음식 교육
	學之始	배움의 시작		衣裳	의복 교육
	學之次	배움의 순서		寢寐	취침 교육
	潔身	품행 교육		交友	교우 관계
	知恥	부끄러움 교육		間戲	휴식과 놀이

『동유교육』의 체제를 보면 서, 정열, 상하 권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서문은 한인 사대부였던 한림이 쓰고 교열은 서양 선교사 4명과 중국인 2명이 각각 담당함으로써 서양 선교사와 당시 서학을 지지하는 사대부들의 교열을 받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上卷〉: 교육 전반에 관한 개론적 내용

1) 교육의 근원

집 짓는 사람은 기초를 잘 다져야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땅을 잘 개간해야 하듯,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혼인의 중요 요소를 (1) 배시(配時), (2) 택현(擇賢), (3) 교정(交正)으로 두고 기초가 잘 갖추어지지 못한 조혼의 폐해를 지적한다. ‘신(身)’과 ‘지(志)’라는 요소가 잘 균형 잡힌(稱) 상태에서의 혼인이 동유 교육의

17) 교정에 참여한 중국인은 韓霖과 段袞이었고 서양 선교사들로는 費奇規(Gaspard Ferreira: 1571~1649), 龍華民(Nicolas Longobald: 1559~1654), 鄧玉函(Joannes Terrenz: 1576~1630), 陽瑪諾(Emmanuel Diaz: 1574~1639) 등이었다.

근원으로 보는 것이다. 점성가의 말이 허황됨을 지적하고 별자리의 모양은 하늘에서 정해 운행하는 자연의 이치이고, 인간의 길흉은 선과 악의 응보로서 천주가 내려주신 뜻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한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으면 부끄러운 자식을 두게 되고 처첩간 자식의 갈등이며, 혈기의 손상, 명예의 실추, 업무의 실패, 재산의 손실 등 모든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생기게 된다고 규계한다. 끝으로 서양 풍속에 많은 이들이 성인과 현녀의 아름다운 동상을 집안에 두어 바른 마음으로 속된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 아이를 기르는데 혼란스러운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2) 양육의 임무 : 어머니의 역할

부모는 자녀를 낳았다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품에 안아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 유모는 혈육의 정이 없이 이해관계만 좇아 아이를 돌보기 때문에 어머니와 다름을 지적한다. 나무가 자랄 때 흙이나 땅을 자주 바꿀 때 제대로 정기가 성장하지 않음을 비유하고 늑대에 의해 길러진 아이를 예로 들면서 부모가 반드시 삼 년 간은 자녀를 품에 안아 길러야 함을 강조하고, 특히 아이 양육에 있어 어머니의 역할을 역설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유모를 선택하는 경우라면 유모의 성정 자질을 고려하여 반드시 집에 불러들여 수행하도록 하고 밖으로 내보내지 말기를 권한다.

3) 가르침의 주제 : 아버지의 역할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엄한 교육(陽之剛)을 강조하면서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로부터 연못에서 뛰어오르는 것을 배우고 작은 소는 큰 소로부터 밭기는 것을 배우며, 작은 새는 큰 새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속담을 예로 든다. 인간은 미약한 존재로 태어나 부모

의 엄한 가르침이 아니면 눈먼 장님이 다니는 것과 같아 인도(援引)하는 도움이 없으면 반드시 위험한 곳에 빠지게 된다고 경계한다. 부모가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면 후일에 자녀가 자신에게 효도하길 바랄 수 없다고 하면서 부자가 자녀 교육을 태만히 하는 것을 보며 꾸짖어 “이는 마치 어린 아이 손에 병기는 들려주면서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 장래에 자신과 타인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되는 것과 같다. 즉 아버지가 되어 자식에게 재물을 물려주되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독약(鴆毒)을 물려주면서 해독제를 주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위험한 것”이라 강조한다. 끝으로 서양 옛 풍속에는 사람을 쓰기 전에 먼저 가정 교육을 살핀 다음 그 사람의 진퇴를 결정한다고 하면서 불초한 자식을 두어 왕의 선택을 받지 못한 박학(博學)한 선비를 예로 든다.

4) 가르침의 조력자 : 교사

비록 엄한 부모라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현명하지 못하거나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고 하면서 지혜로운 자는 스승을 두 번째 아버지로 삼는다는 점을 들어 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 대개 부모는 나를 낳아 나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게 하고 어진 스승은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 준다는 것이다. 플라톤(罷辣多)이 “(1) 천주의 광택 (2) 부모의 양육 (3) 어진 스승의 가르침 등 세 가지 요소는 측량할 수도 없고 값을 수도 없는데 어찌 믿지 않겠는가” 하고 언급한 것을 든다.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녀의 훌륭한 스승을 모시는데 힘써야 함을 강조하면서 스파르타와 그리스의 교육을 예로 든다. 특히 “가정의 본의는 사랑에 있고 국가의 본의는 어짊에 있다”¹⁸⁾는 점을 들어 부지런히 바른 학문에 힘써 어진 스승이 옳다고 하면 이에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서구에서

18) 家志乎慈 國志乎仁

대학을 설립하여 훌륭한 스승을 모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 공을 천주에게 돌리고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 교육을 하는 단체가 있으며 그 단체가 바로 예수회(耶穌會)라는 점을 든다. 여기에서 예수회의 교육 취지 및 목표는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하기도 하고 문과 교육을 수학하게 하거나 천문을 담론하거나 만물의 성질과 이치를 분석하거나 천주교의 교리를 해석하는 것 등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모두 힘을 합하여 교육에 힘써 하늘에서 인간과 사물을 주재하고 다스리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한다.

5) 가르침의 방법

부모와 스승의 교육을 어찌해야 한다는 물음에 ‘언(言)’으로 하고 ‘신(身)’으로도 해야 한다고 답한다. 특히 좋은 스승에 대한 물음에 말이 가장 적은 사람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에 있어서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강조하면서 망언(妄言), 탄언(誕言), 오언(汚言), 죄언(罪言)을 피해야 한다고 언급한다. 고금의 성현들이 스승을 선택할 때 ‘덕(德)’과 ‘행(行)’을 가장 중시했음을 언급하면서 아동의 행동이 어떠한가를 알고 싶으면 부모와 스승이 어떠한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부모와 스승이 바르게 교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의 몸가짐을 본보기로 하고, 좋은 행동으로 그 말을 진실 되게 하면 믿고 따르기가 쉬워진다고 한다.

6) 가르침의 균형 : 상벌

자녀를 지나치게 사랑하는 부모는 다른 사람이 자녀의 나쁜 점에 대해 꾸짖는 것을 참지 못해 자녀의 나쁜 생각이 커져 좋은 기질까지 병이 들게 된다. 또 스승이 지나치게 엄하면 아이의 착한 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착한 마음이 때로는 꺾여 의욕이 떨어지기도 한다. 아동을 통제하는 좋은 방법은 상과 벌이 있다. 가르치는 것은 통제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우므로 상과 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마치 새의 두 날개, 배의 두 개의 노와 같다고 비유하면서 하나라도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7) 배움의 시작

배움이 귀하다면 순서에 따라야 하며 먼저 근본을 세운 다음 끝에 이르러야 하는데 근본은 인을 말하며 인이란 수신과 제가의 근본이며 모든 선의 모체이므로 학문의 시작은 ‘인을 본받아 배우는 것’이 지름길이다. 또한 이와 함께 천주에 근본하여 배워야 한다. 이는 천주를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삼는 것인데 그 이유는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으로 그보다 더 크고 존경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대개 천주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군신지의, 부자지친, 부부지별, 장유지서, 봉우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서양의 학교에 여러 교과목을 운영하지만 그 중에서 위로 천주를 섬기고 공경하는 과목을 반드시 가장 중요 으뜸 과목으로 삼았다. 천주를 섬기는 도를 가르치는 방법으로 (1) 참됨을 알고 (2) 깊이 감사하며 (3) 간절히 천주를 따르는 것이라 하며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천주를 공경하는 도를 다하는 것이다.¹⁹⁾라고 하였다.

8) 배움의 순서

아동에게 ‘인(仁)을 배우게’ 하고 ‘천주를 섬기는 것’을 근본으로 하면 반드시 부모를 섬기게 된다. ‘경천주(敬天主)’와 ‘효이친(孝二親)’이 천리(天理) 인정(人情)의 간절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데 다음과 같이 명령의 경중에 대하여 언급한다. 성현이 말하기를 “명령에는 천주명(天主命), 황

19) 認之眞 謝之密 從之切三者盡 而畏主之道盡矣.

왕명(皇王命), 부모명(父母命)”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명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는 없어 그 중에 포기한다면 임금과 아버지의 명을 내려 놓고 천주의 명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하물며 임금과 아버지가 내린 명이 바른 것이라면 천주의 명과 합하지 않을 리 없다.

9) 결신(潔身) : 품행 교육

아동 교육은 인을 근본으로 한 후 품행의 비름에 힘써야 한다. 노인에게는 지혜로움은 중시되지만 인색함은 경계해야 하고 장년에는 굳센 의지는 중시되지만 함부로 성념을 경계해야하고 아동에게는 품행의 비름을 중시하고 욕심을 경계해야 한다. 현인 소크라테스(束格辣德)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두 가지를 일러두었는데 (1) 하나는 도를 밝히는 것으로 품행이 바르면 천상과 통하기 때문에 신과 성현을 만날 수 있으며 (2) 다른 하나는 음란하면 어두운 곳에 떨어지므로 모든 악마와 만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대개 지혜와 음란한 것, 덕과 여색은 함께 수용될 수 없는 것이다. 행동과 생각은 서로 따로 할 수 있지만 음란한 말은 음란한 생각을 끌어들이고 음란한 생각은 음란한 행동을 가져오므로 음란한 것을 익힌 자는 대부분 입과 귀로 시작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

10) 부끄러움 교육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비록 나쁜 것에 빠져도 반드시 멈추는 시기가 있고 회복할 계기가 있다. 부끄러운 마음에 묘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1) 하나는 사람 앞에서 나타날 때이고 (2) 다른 하나는 혼자 있을 때이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이 보는 데에서 조심하여 부끄러움을 삼가지만 혼자 있으면 부끄러운 마음이 없어져 마음대로 한다. 이는

잘못으로 군자는 다른 사람이 볼 때보다 스스로 혼자일 때 더욱 엄하게 했다. 부끄러움을 이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드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천주와 하늘에 계신 신께서 내린 두터운 은혜인 것이다.

〈下卷〉: 언어, 학문, 의식주, 교우관계, 휴식 등 교육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1) 묵언(默言)의 가르침

현인과 스승이 묵언을 으뜸으로 삼아 많은 가르침을 베푼 것을 말하고 그 예로 소크라테스(東格辣德) 역시 그 문하에서 먼저 칠 년간의 묵언을 익힌 다음에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비유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부유한 창고와 같고 인간의 입은 창고의 문과 같아 그 문을 잠그지 않으면 반드시 도둑이 들어 후회하게 된다. 군자의 학문은 마음으로부터 전해 받고 입을 막아 묵언으로 학덕을 쌓는 것이다. 참다운 배움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는데 (1) 하나는 묵언이고 (2) 또 하나는 희언(希言)으로 이것이 곧 실질적인 배움(實學)이다

2) 믿음직한 언행

아동의 성품 중에 말을 번잡하게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묵언으로 번잡한 말을 통제한 후에 거짓말을 바로잡아야 하며 말을 진실 되게 하는 것은 일찍 익혀야 한다. 거짓된 감정, 거짓된 말이 점점 진실로 들어오면 얼마 후 나 역시 곧 그 감정과 말이 참인 듯 빠지게 된다. 이른바 진실한 사람은 참을 기르고 거짓된 자는 거짓을 기른다. 만일 어린 아이가 배우는 데 허황된 말에 놀아나는 것을 보고 생을 마칠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말려 바로 잡지 못한다면 이는 삼가고 삼갈 바이다.

3) 학문의 수학(修學)

사람은 아는 것을 인도(人道)의 시작으로 삼고 행하는 것을 인도의 끝으로 삼아야 하는데 나면서 인도를 아는 지는 드물다. 그러므로 아는데 뜻을 둔 지는 반드시 배움으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 아동의 배움은 인(仁)에 근본하고 효(孝)로 나아가 인(忍)으로 굳건히 하고 지(智)로 성취하여야 한다. 이 네 가지는 경전이 아니고서는 갖출 수 없으니 대체로 고금의 훌륭한 덕(懿德)과 실질적인 학문(實學)은 모두 책에 담겨 있다. 아동이 세상의 도를 시작하는데 학문의 수학을 빼놓고 어찌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경전은 익히면 익힐수록 더욱 밝아지고 지혜가 더해진다. 소크라테스(束格辣德)는 서양의 철학자로 일찍이 세 가지 은혜에 감사했다. (1) 하나는 천주께서 나에게 성령을 부여하시어 짐승 가운데 던지지 않으셨어요 (2) 둘은 천주께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어 여자의 몸을 갖게 하지 않으셨어요 (3) 셋은 천주께서 나를 학문을 배우는 나라에 두시어 우매한 야만인 가운데 던지지 않으셨어요. 이 세 가지 은혜는 하늘이 주신 큰 은혜이자 매일 감사하고 삼가 공경해야 할 바이다. 황금은 다섯 가지 금속 가운데 가장 귀하고 옥석은 보물 가운데 가장 귀하지만, 단련하고 갈지 않으면 좋은 가치를 얻을 수 없다. 기질이 좋은 사람이라도 글을 배워 닦고 다스리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찌 귀하다고 하겠는가.

4) 바른 독서

책이란 아동이 배우는데 가장 시급하게 배울 바로 그 전적을 버린다면 마치 깃털과 날개 없이 높이 날고자 하는 것과 같은데 어찌 이를 수 있겠는가? 국가에 좋은 책보다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없으나 반대로 국가에 해로운 것 또한 사악한 책보다 더한 것이 없다. 아동이 바른 책으로 배우는 것은 더욱 중요한데 일찍이 플라톤(罷辣多)은 사악한 서적의 피해를 비유하여

‘독이 있는 샘물이 여러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 죽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여 사악한 책을 단속하였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동의 음식, 의복에 대해서는 엄하나 책의 바르고 나쁜 것에 조심하지 않으니 왜 몸에 해로운 것만 꺼리고 정신의 해로움은 꺼리지 않는 것인가.

5) 서학 : 서구의 학문²⁰⁾

“글을 배우는 것은 이미 국가가 해야 하는 시급한 과업인데 그 중요한 학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후자의 물음에 “국가에 도가 있다면 반드시 배움도 있어야하나 배우는 순서는 피차간에 같지 않을 수 있다. 서학에 대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고 하고자 하니 만일 수용할 내용이 있다면 학문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²¹⁾고 이 편의 저술 의도를 밝히고 있다.

먼저 서구학문을 분류하여 (1) 첫 번째는 문과 학문이며 언어는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로 사물에 접하면서 글을 배워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다음으로 (2) ‘법률학/ 의학/ 격물궁리학’이라는 삼가(三家) 중에서 자신의 뜻에 맞는 학문 분야를 탐구하며 이 세 분야의 학문은 바로 서양학문의 큰 단서가 된다. 이 중 세 번째 격물궁리학은 ‘費羅所非亞(Philosophy)’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번역한다. 이는 하위 학문으로 다시 논리학(落熱加: Logica), 자연과학(非西加: Phisica), 기하학(瑪得摩弟加: Mathmatica), 형이상학(默大非西加: Metaphisica), 윤리학(厄第加: Ethica)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로 나뉜다. 이 중에서 특히 윤리학을 세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는

20) 이 장 서두에는 “이 원고는 십칠 년 전에 탈고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宋木 동지가 이를 보완하여 머지않아 작업이 거의 끝날 것이니 원고를 대략 가감하여 함께 인쇄에 부친다. 이에 책은 이미 출간되었으나 부득이 원고를 보내 함께 간행한 것이다(此稿脫于十七年前 未及宋木同志見 而不迂業已 約略加減刻行矣 茲全冊既出 不得獨遺此 爲遂照原稿併刻之)”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21) 或問文學既爲國家之急務 童幼之要業 當如何 則可 余曰 國有道 必有學焉 但學之序彼此不同 吾將陳西學之節 或有所取而助中國之學乎.

데 의례에 관한 학문으로 먼저 의례로서 수신하는 분야, 몸으로써 제기하는 분야, 끝으로 제가로서 국가를 다스리는 분야가 그것이다.

다음은 (3) 천학(天學)으로 이는 서양의 신학(陡羅日亞: Theologia)이며 이 학문은 고금의 경전과 모든 성현이 펴낸 추론에 근거하여 정도의 본원을 분석하고 이단의 나쁜 것을 피한다. 이는 또 네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첫째 분야는 사물의 위에 존재하는 지대하고 지극히 밝고 선하며 공명한 주(主)에 대해 그 성격과 불가사의한 정황을 자세히 다룬다. 둘째 분야는 천주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공덕을 논하고 만물 가운데 신과 인간이 영장으로서 가장 귀한 존재임을 다룬다. 셋째 분야는 만민이 지향하는 참다운 복과 그 복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까닭, 선악 및 모든 선악의 바른 업보를 논한다. 넷째 분야는 천주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내력과 그 많은 사람을 교화하다 하늘로 승천하는 기적을 이루고 하늘로 돌아간 후에 교화하는 모든 규칙을 정한다.

마지막은 (4)인학(人學)으로 천학(天學)이 갖추어지면 인간의 학문인 인학은 온전하지 않음이 없게 되어 수제치평에 힘쓰는 것이 더욱 밝고 용이해져 실천하는 힘이 더욱 강해질 것이다.

6) 음식교육

옛 현인이 일찍이 배우는 데 세 가지 경계할 것을 (1) 복(服) (2) 설(舌) (3) 색(色)이라 하였는데 이 중 배부르게 먹어서 오는 해가 가장 심하다. 어리석은 부모는 사사로운 정에 가려 아동을 양육하는데 이는 짐승을 기르는 것과 같다. 특히 아동에게 술을 경계하게 함은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 성현이 말하기를 “술이란 곧 도덕의 적이자 청결의 원수요 정신과 몸에는 달지만 독이 많다. 그런 술을 가까이 하면서 어찌 도덕 배우기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하였다.²²⁾

7) 의복 교육

조물주는 인간을 위해 의상으로 몸을 가리고 외부로부터 환난을 막도록 하셨는데 후대 사람들이 점점 의복을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장식하길 좋아하였다. 아동의 옷차림은 더욱 삼가야 하는데 대개 외부로부터 혼란스러운 것들이 마음을 유혹함에 있어서 의상 꾸미는 것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리지만 배우기를 좋아하는 자는 안으로 글을 배우는 데 뜻을 두고 밖으로 꾸미지 않으며 안으로 여유로움을 추구할지언정 밖으로 드러난 부분에 부족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대개 아동의 성품은 꾸미기 좋아하고 밖으로 드러난 장식을 좋아하지 안으로 닦는 아름다운 가치에 대해 모른다. 엄한 부모와 밝은 스승의 지도가 아니면 어떻게 스스로 발전할 수 있겠는가

8) 취침 교육

잠은 아동에게 음식 다음으로 중요하지만 잠에도 적절한 도가 없으면 곧 맑은 정신을 쇠약하게 하고 학문 수양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마치 먹는 것과 같이 적당히 해야 하며 지나치면 양육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를 가져온다. 조물주께서 우리를 낳아 세상에 보내시어 반드시 도덕을 닦아 공적을 쌓도록 계획하셨다. 도를 닦아 공을 쌓는 시기는 빠르기가 마치 망아지가 문 틈새를 지나가 듯 빠르니 이에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떠한가

22) 이에 술을 마시는데 湏-喜-辱-狂으로 네 가지 등급이 있다고 한 성현의 말을 덧붙인다. 대개 아동은 처음에 술을 가까이 하면 호물호물해지다 심하여 과해지면 점차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그러다 마침내는 욱되고 미치게 된다. 대체로 일찍 술을 익힌 사람은 반드시 앞에 이르는 데 지체되지 않음이 없다(古聖又曰 酒之用有四級 一謂之湏 一謂之喜 一謂之辱 一謂之狂 蓋早習于酒者 必遲至于知無不然也).

9) 교유 관계

대개 공부하는 선비를 친구로 사귀면 책을 익히게 되고 수렵하는 친구를 사귀면 짐승을 쫓아다니게 되며 술에 취한 사람을 사귀면 술에 빠지게 되어 사귀지 오래지 않아도 서로 본받게 된다. 현인이 늘 말하기를 “엄한 임금과 현명한 스승의 가르침이 크다 하지만 친구의 말만큼 능히 벗의 마음을 움직일만한 것은 없다”라 하였다. 대체로 진실한 친구 간의 의리는 덕과 뜻이 서로 비슷하고 덕행이 서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친구를 비로소 친구로 삼아야한다. 둘 두 개가 서로 부딪치면 빛이 생기면서 불이 나게 된다. 그 둘이 사람이라고 하면 만나서 교분을 쌓는 것은 마치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인성의 빛과 뜻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친구와 덕으로 서로 성장에 도움을 주고 받으면 그 관계는 그침이 없는 것이다. 속담에 “등에 기름이 없고 친구에게 덕이 없다면 줄여야 한다”는 말이 있다. 도움이 되는 친구를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맺어지면 단단해져 큰 이 유가 없으면 단절될 리 없다. 옛 말에 이르기를 “친구를 사귄 때 아무 이 유 없이 옛 친구를 버리고 새 친구로 바꾸는 것은 과거의 은혜를 잃는 것 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다.

10) 휴식과 놀이

사람의 성품도 마치 활처럼 당겼다 놓았다를 여러 번 하듯 수선해야 한다. 아동의 기질은 약하고 심지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여 한희(閒戲)의 시간이 아니면 오래 집중하여 견딜 수 없다. 아동은 늘 바르게 학업을 익혀야 하지만 약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휴식이 길어져 오래 편안해지면 예전에 배운 것을 잊어버리게 된다. 오직 바르게 배우고 남는 힘이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올바른 자를 불러 휴식을 취하며 놀지언정 사악한 것을 익히는 데 빠져서는 안 된다.

4. 『동유교육』의 내용상 특징

1) 서학에 대한 계통적 분류

바노니는 ‘서학’이라는 언급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유교육』을 1620년 지었음을 볼 때 서양에서 온 공자라고 일컬어지는 알레니(Aleni, 艾儒略, 1582~1649)의 『서학범(西學凡)』(杭州, 1623)보다도 앞 선 시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학범』에서 알레니는 서양의 학제를 설명하면서 윤리학을 ‘액제가(厄第加)’라고 소개하면서 이는 ‘ethica’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의리의 학을 고찰하고 다시 철학(斐錄)에서 뜻하는 사물의 정세를 다룬다’고 소개하는데.²³⁾ 이는 바노니가 『동유교육』 2권 5장인 ‘서학’에서 밝힌 개념과 유사하다. 더욱이 이 장 서두에서 원고가 훨씬 이전 시기에 타고 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하여 원고를 대략 가감하여 함께 인쇄에 부친다고 언급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바노니가 더 이른 시기에 이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종교의 전파 뿐 아니라 교육을 목적으로 한 서양의 학문과 과학에 대한 소개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였는데 이러한 서양 학문 계통의 소개 또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저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정치학’, ‘형이상학’ 등에 대한 숙련된 지식이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마테오리치와 같은 초기 예수회 사제들이 이수해야 하는 철학과 신학의 7년 과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체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나달의 1551년 문서 <예수회 대학의 교과과정 De Studiis Societatis Iseu>에는 철학과정을 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논

23) Aleni, 김귀성 옮김, 『17세기 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 - 『서학범』, 『직방외기』』, 원미사, 2001, 31쪽.

리학, 자연학, 영혼론 등을 이수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3년 과정 첫 해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이수하고 그 뒤 3년간 『자연학』, 『천계론』, 『기상론』, 『발생, 소멸론』, 『영혼에 대하여』, 『형이상학』을 교재로 수업을 했다. 초기 예수회 대학의 이런 지적 분위기는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중국에 정착한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 유교의 고전을 저항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²⁴⁾

이러한 사상적 배경 하에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유교육』 ‘서학’ 편에서 서양학문에 대한 계통적이고 단계적인 분류에 의한 설명이 가능했던 것이다.

2) 부모와 교사의 역할 강조

『동유교육』에서는 아동의 교육에 있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어머니를 기르는 역할로 아버지를 가르치는 주체로 강조하고 있다. 교육의 근원으로서 부모가 서로 만나 선택하여 바르게 사귀는 시점까지 올라가 태아 이전의 교육이 중요하여 삼가야함을 언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집을 짓는 사람은 기초를 잘 다져야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땅을 잘 개간해야하듯 아동을 양육하는 데 있어 부모는 반드시 그 기초가 되니 대체로 자녀는 부모의 정혈로 이루어진다”²⁵⁾라고 하면서

24) 예수회의 사제 서품을 위한 교과과정은 로올라의 『예수회 회헌Constitution』에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2년간 라틴어와 헬라어 수업을 이수하고 추가로 2년간 인문학적 수련을 더 받아야만 사제가 되기 위한 철학과 신학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철학을 위해서는 3년의 교과과정, 그리고 신학을 위해서는 모두 4년의 추가 교육과정이 부과되었다. 따라서 사제로 서품받기 전 모든 예수회 사제들은 12년의 엄격한 교과과정을 이수해야만 했다. 김상근,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나타난 16세기 후반 예수회 대학의 교과과정과 예수회 토미즘의 영향』, 『教會史學』 제4권 제1호, 한국기독교회사학회, 2004, 109~112쪽

25) “造室者先築其基 佃田者先墾其地 養育之道 必二親爲基地 蓋子者父母之精血也”

부모 심성의 맑고 탁함과 행실의 바르고 그룹이 모두 그 자녀에게 유전적인 인자로 전해진다는 것이다. 신(身)과 지(志)로서 바른 모범을 보이고 상과 별의 균형을 잘 잡은 양친의 가르침이 아니면 눈먼 장님이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인도의 도움이 없으면 반드시 위험한 곳에 빠지게 된다고 비유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조력자로서 교사의 역할을 함께 강조하였는데, 이에 ‘부모는 나를 낳아 세상에 나가게 하고 어진 스승은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게 가르쳐 주신다’고 언급한 것이다.

3) 본말론에 대한 인식

중국 사상에서 본말론은 『대학』에서 “모든 사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근본과 말단, 시작과 끝의 순서를 깨달으면 도에 가까울 것이다”²⁶⁾라고 한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동유교육』에서는 제7장 ‘학지시(學之始)’에서 “먼저 그 근본을 세운 다음에 그 끝에 미치는 것이며 그 근본이란 인(仁)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근본을 인이라고 한 것은 중국의 유가 중심 사회의 윤리 규범을 일부 수용한 듯 보인다. 근본은 인이며 인이란 수신과 제가의 근본이며 모든 선의 모체이므로 학문의 시작은 ‘인’을 본받아 배우는 것이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인을 본받는 것의 근본이 바로 천주에 있다고 함으로써 유가적 가치이자 윤리 규범인 인과 천주를 경외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 이는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으로 그보다 더 크고 존경할 것이 없기 때문에 천주를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류의 도를 세울 수 없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제 8장 ‘학지과(學之次)’에서는 천주명(天主命), 황왕명(皇王命), 부모명(父母命) 세 가지 명을 한꺼번에 다 받들 수는 없어 그

26) “物有本末 事有始終 知所先後 則近道矣”, 『大學』經一章.

중에 포기한다면 임금과 아버지의 명을 내려놓고 천주의 명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점에서 바노니가 『동유교육』에서 언급한 본말론과 유가의 본말론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가 생각하였던 본말론은 부모에게 효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도덕적 규범의 준수와 실천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절대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면 그 의의를 상실하기 되기 때문이다.

4)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통한 동서 융합적 인식

‘제가’라는 개념은 『대학』의 삼강령팔조목 중 하나로 수신하지 않으면 집안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여 제가에 앞서 수신을 그 선행요건으로 삼는다. 바노니가 유가의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논리에 따라 『수신서학』, 『민치서학』, 『제가서학』 등과 같은 서학을 테마로 한 기획물을 연속적으로 출간한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기획은 예수회의 기본 선교 전략인 ‘적응주의’의 계승이자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예수회의 적응주의는 유교와 천주교의 융합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유교와 두 종교의 융합이 가능했던 이유는 도덕과 정신적 수양의 측면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종교성이 취약했던 유학이 종교성이 분명하며 유일신을 갖는 기독교와 대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²⁷⁾

이는 중국의 익숙한 전통 윤리 사상과 서구 윤리학의 자연스러운 접목을 시도한 의도로 볼 수 있다. 『동유교육』 서문에서 한림 또한 “서양 윤리학은 수제치평의 학문이라고 옹기면서 이를 철학의 오대 영역(논리학, 자연과학, 수학, 형이상학, 윤리학)의 하나로 구분”한다. 이어서 윤리학을 의례를 탐구

27) 데이비드 E 먼젤로 지음, 이항만·장동진·정인재 옮김(2009),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나남, 60쪽.

하는 학문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수신, 제가, 치국의 하위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당시 서구 윤리학에서 의례란 인간의 몸으로 표출해내는 것, 인간의 마음을 비춰보는 것, 선악과 관련된 것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의례를 다루는 학문으로써 윤리학을 크게 세 가지 범주(개인, 가정, 국가)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관계로 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유가의 ‘수신 제가치국평천하’의 논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개인-가정-국가 관계와 윤리적인 측면에서 조우한 결과로 보는 시각은 비록 제한적이지만, 중국문화와 서구문화 간의 동서 융합과 교류를 보여주는 단서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가정-국가 간의 관계와 『대학』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관계가 저자에게도 다르게 비쳐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한계점으로 이러한 서구 윤리학 소개의 저변에는 천주교 문화의 소개, 선교적 차원에서 접근을 부정할 수 없다. 바뇨니가 서구 윤리학을 동아시아에 소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의도는 천주교라는 종교적 교의에 기반을 둔 면을 부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5. 조선에서의 관련 기록과 그 의미

한문서학서의 유입과 관련된 최초 기록은 선조대 이수광의 『지봉유설』로 1603년 북경에 사행한 이광정이 리치가 제작한 세계지도를 가져왔음을 전해준다.²⁸⁾ 이후 인조대 진주사(陳奏使)로 사행했던 정두원이 1631년 귀국할 때 『치력연기(治曆緣起)』, 『천문략(天問略)』 등을 전래하였고 1644년 병자호란 후 인질로 체류하였던 소현세자 일행이 귀국할 때 서양 과학기와 일부 서학서를 지참하였다.²⁹⁾

28) 李晔光, 『芝峰類說』 권2, 地理門 外國3.

이어 이벽, 이승훈, 권일신, 정약종, 이가환 등이 이지조가 모아 편찬한 『천학초함(天學初函)』을 탐독하였는데, 특히 이가환은 아직 성교를 받기 전에 『직방외기』, 『서학범』 등을 보고 식견을 넓힐만하나 아직 안신 입명(安身立命)에는 족하지 않다³⁰⁾고 언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학초함』의 첫 머리에 실린 알레니의 『서학범』은 서양 학문을 정리하여 개관한 윤리 교육서로 『동유교육』과 그 성격이 유사하며 두 저자의 활동 시기와 지역이 겹쳐 교류하였다는 점에서 『천학초함』의 유입시기와 비슷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 시기는 알레니의 『직방외기』의 서학에 대한 개념을 둘러싼 18세기 초중반 안정복(安鼎福)이나 신후담(愼後聃)³¹⁾ 등의 조선 인사들의 벽위 논쟁과도 관련 있으며 그 시기에 이미 지식인층에 널리 읽혀졌음을 볼 때 『동유교육』의 유입시기는 그 이전인 17세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천주교회 창립한 지 7년 만인 정조 15년인 1791년 폐사분주(廢祀焚主)문제로 인한 신해 진산(辛亥 珍山)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 서교사서(西教邪書)를 수색하여 소각시켰는데 그 때 소각된 한문서학서의 서목을 보아 조선에서의 당시 사정을 유추할 수 있다. 『동유교육』도 중국에서 간행된 후 조선에도 유입되어 보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외규장각 목록인 『외규장각봉안책실보보략지장어제필급장치서적형지안(外奎章閣奉安冊室寶譜略誌狀御製筆及藏置書籍形止案)³²⁾』에서 『동유교육』은 바뇨니의 다른 서학서³³⁾와 함께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다.³⁴⁾ 따라서 『동유교

29) 『正教奉褒』 권1, 世祖 順治 元年 12月.

30) 黃嗣永, 黃嗣永帛書48行, 甲乙之際 聞李槃等信從聖教 責之曰: 我亦見西洋書數卷(本家有『職方外記』·『西學凡』等)

31) 특히 신후담은 <서학변(西學辨)>에서 서학의 전체적인 이해와 서학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서양 중세 교육론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주장하려는 바는 유학에 대한 신념을 공고히 하는 것이었으나 서양의 교육내용, 제도 방법 등을 이해하고 동서양교육관을 논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32) 『外奎章閣奉安冊室寶譜略誌狀御製筆及藏置書籍形止案』, 乾隆47, 정조 6년, 1782.

육』과 관련하여 조선에서 확인된 기록은 적어도 규장각 설립(1776) 이전 혹은 외규장각목록(1782)에 편입되기 전에 이들이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조선의 포교는 북경을 매개로 한 간접 방식으로 연행과정³⁵⁾ 중에서 입수한 한문서학서 중 상당수 자료가 진산사건과 병인양요 등으로 유실된 상황에서 책 이름과 수량을 파악할 수 있는 일부는 그것을 읽은 인사들의 기록에 한정된다는 점³⁶⁾은 관련 연구의 한계로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6. 결론

문화적 배경은 서구였으나 다년간의 중국 생활로 당시의 동아시아 문화를 수용한 점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예수회의 적응주의 선교 전략에 의해 바노니가 쓴 한문서학서 『동유교육』에 대한 연구는 동서 문화 교류사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는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유교육』 필사본인 대만의 보인대학본 자료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서지사항과 저술 배경을 살피고 저서의 주요 내용을 살핀

33) 『修身西學』·『寰宇始末』·『勵學古言』·『斐錄答彙』·『齊家西學』·『四末論』·『達道紀言』·『天主聖教聖人行實』,

34) 우리나라에 소개된 서학자료 중 그의 저서가 차지하는 비중은 마테오 리치(11종)에 이어 가장 많다

35) 1636년 병자호란 종전 이후 명과의 사대외교를 청과 유지하게 되면서 1637년부터 이승훈이 북경에 들어가는 1783년까지 147년간 도합 167여 회에 걸친 각종 명목의 사대사신의 과전이 있었다. 全海宗, 『韓中關係史研究』, 일조각, 1970, 72~73쪽 <표 3> '崇德順治年間 年別使行頻度數', <표 4> '乾隆後半期 年別使行頻度數'에 의해 작성하였으나 1632~65년 연간통계가 빠져 있어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이원순, 앞 책, 88쪽 참조

36) 이원순, 앞 책, 88~89쪽에 관계사료에서 당시 인사들이 閱讀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후, 그 분석을 통해 추출된 내용상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회 수련과정에서 서양의 철학 정치학 윤리학에 대한 숙련된 이해를 바탕으로 서학에 대한 계통적 분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바뇨니는 ‘서학’이라는 언급을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동유교육』을 1620년 지었음을 볼 때 알레니의 『서학법』보다도 앞 선 시기였다. 이를 통해 서양 학문에 대한 개관적 설명으로 서학을 소개하고 있다. 둘째, 아동 교육에 있어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중요시하였으며 특히 어머니를 기르는 역할로 아버지를 가르치는 주체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동양적 사고방식인 유교에 바탕으로 둔 본말론이 아닌 ‘인(仁)’을 본받는 것의 근본이 바로 천주에 있다고 함으로써 유가적 가치이자 윤리규범인 인과 천주를 경외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통한 동서 융합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의 삼강령팔조목 중 하나로 수신하지 않으면 집안을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여 제가에 앞서 수신을 그 선행요건으로 삼는데 이는 서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국가·가정·개인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파악한 것을 윤리적 측면에서 동양적 개념으로 수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유교육』은 당시 중국에서 간행된 후 조선에도 유입되어 보급되었으나 진산 사건 이후 소각된 한문서학서 서목이 『외규장각목록』에서 확인되며 현재 조선에는 남아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그러나 조선 유입 이후 당시 조선 지식인층의 영향관계를 고려할 때 본 자료가 17세기 동서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동서양을 잇는 중요 연결 고리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관련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鐘鳴旦·朴鼎克·祝平一 等 編, 『徐家匯藏書樓明清天主教文獻』, 臺北, 輔仁大學神學院, 1996.
- 鐘鳴旦·朴鼎克·蒙曦 等 編, 『法國國家圖書館 明清天主教文獻』, 臺北, 臺北李氏學社, 2009.
- 徐宗澤 編『明清間耶穌會士譯著提要』, 中華書局, 1958.
- 『外奎章閣奉安冊室寶譜略誌狀御製筆及藏置書籍形止案』, 乾隆 47, 정조 6년, 1782.
- 楊森富 編, 『中國基督教史』,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57(1968).
- 『在華耶穌會十列傳及書』上冊, 北京中華書局, 1996.
- 강재언, 『서양과 조선』, 학고재 신서, 1998, 1~262쪽.
- 김귀성, 『P. A Vagnoni 著 <동유교육>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교육문제연구』 35집, 2009, 21~42쪽.
- 김상근,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에 나타난 16세기 후반 예수회 대학의 교과과정과 예수회 토미즘의 영향』, 『교회사학』 제4권 제1호, 한국기독교교회사학회, 2004, 109~112쪽.
- 먼젤로(Mungello) 지음, 이향만·장동진·정인재 옮김, 『진기한 나라 중국: 예수회의 적응주의와 중국학의 기원』, 나남, 2009, 1~656쪽.
- 박지현, 『알폰소 바뇨니의 <서학제가> 제부부 권』, 『인문논총』 제67집 2012, 511~550쪽.
- 아리스토 텔레스 지음, 천병희 옮김, 『정치학』, 도서출판 숲, 2009, 1~470쪽.
- 알레니 저, 김귀성 옮김, 『17세기 조선에 소개된 서구교육 - 『서학범』, 『직방외기』』, 원미사, 2001, 1~358쪽.
- 이원순, 『朝鮮西學史研究』, 일지사, 1986, 1~532쪽.
- 최소자, 『명청시대 서학수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1982.
- 히라카와 스케히로(平川禰弘) 지음, 노영희 옮김, 『마테오리치: 동서문명교류의 인문학 서사시』, 2009, 1~924쪽.

ABSTRACT

The study of the 童幼教育 written by P. A Vagnoni

Bae, Joo-yeon

童幼教育 written by P. A Vagnoni is the book for the education of the child of which written purpose is mission work of the Christianity in the mid of 17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background and the contents of the book and to find out the implication of the western literature in the Yi Dynasty.

The study on the 童幼教育 has the meaningful implication in the aspect that this book accept the culture of the Eastern Asia in those days.

This study is based on the manuscript possessed by the 輔仁University in Taipei.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s of the book are as follows. First, it shows the classification of the line of western literature based on the well understanding of the philosophy, politics and ethics of the West. P.A Vagnoni referred 西學 earlier than Aleni considering this book written in 1620. Second, it shows the importance of roles of the parent and teacher in education of the child. Especially it shows the role of the parent, that of the mother is the raising and that of the father is the teaching of the child. Third, it says that 仁 is closely related to the spirit of the Lord rather than 本末論 which is the basic thought of 儒教. Fourth, it shows the fusion thought of the East and West through the 修身齊家治國平天下. It says that the relationship of the nation, family and individual in the politics of Aristoteles is similar to the thought of 修身齊家治國平天下.

Key Words 童幼教育, the education of the child, the Christianity, the ethics, the western literature, P. A Vagnoni.

논문투고일 : 2015. 11. 10
심사완료일 : 2015. 12. 6
게재확정일 : 2015. 12. 8